

## 2020년 5월 시청자위원회

2020년 5월 26일 (화)

대전MBC 4층 대회의실

참석 :

시청자위원회 : 김선재위원장, 박상민 위원, 송은영 위원, 배장우 위원, 안경자 위원, 이기동 위원, 정현주 위원, 조은희 위원 (총 8명)

회사 : 신원식 사장, 이재근 경영국장, 장래균 편성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우경수 기술국장, 신영환 미디어전략국장, 신삼복 경영심의부장 (총 7명)

개회 : 지금 2020년 5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원식 대표이사 :

코로나오 인하여 오랜시간후에 뵈니, 시청자위원분들 모두 건강해보이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그 사이 전임 시청자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위원님들을 맞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여를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 시청자의 시각으로, 또한 애정 어린 시각으로 저희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일상 전반과 산업계의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외가 아니지만,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긴 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에 대한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

신임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격려 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는 사장님 말씀처럼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 :

새롭게 시청자위원에 위촉된 송은영입니다. 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직후부터, 방송, 특히 MBC에 대해서 이전보다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과 다양한 의견들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장우 위원 :

저는 사회의 여러분야중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인의 시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기업인으로써 경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다루었으면 합니다.

안경자 위원 :

저는 오늘 시청자위원으로 서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또, 시청자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MBC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

시청자위원회라는 단체는 처음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서 근무하기에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 설레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대전MBC와는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칭찬과 쓴소리, 시민과 시민단체의 입장, 민언련의 입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 :

저는 우리지역에서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여성과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방송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은희 교수 :

저는 목원대학교에서 언론, 광고를 가르치고 있고, 미디어 수용자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자와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기는 하지만,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많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배장우 위원 :

저는 경제 분야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5/6 뉴스데스크, 해외 입국 재 확진자 20대 여성, 남성에 대한 보도에서 멘트에서는 20대 여성, 자막에서는 20대 남성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준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독립기념관 시민인터뷰중에서 <많이 완화돼서, 많이 편해진 것 같다. >라는 표현을 그대로 자막으로 사용했는데, 인터뷰 음성을 편집이 불가능하더라도, 자막은 어법에 맞게, 중복되는 단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3 시시각각에서는 진행자의 순발력 있는 진행은 좋았는데, 다만 처음 시작 멘트의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만 더 천천히 처음 시작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박상민 위원 :

대전MBC 홈페이지를 보면 코로나 19 상황판이 있고, 이 섹션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 보도들이 추가되는데, 최근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성 섹션은 지속적이고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5/17 시시각각에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균형발전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를 방송했는데, 그동안 대전은 균특법의 혜택을 못 받다가 이번에 개정으로 가능하면서 경제부분에서는 새로운 활력이 예상됩니다. 대전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가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논의도 향후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경자 위원 :

저는 주부의 입장에서 아침 방송을 틀어놓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생방

송 아침이 좋다가 방송되는데, 머물러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퀴즈도 풀어보고, 상품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퀴즈라는 형식자체가 좀 오래되었고, 같은 형식으로 계속 방송되고 있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MBC는 예전의 KBS를 보는 느낌입니다. 시청자의 눈을 끌 수 있는 역동성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 위원 :

저도 코로나 19 상황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박상민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셔서, 넘어 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0에는 프로파일러 김경옥 박사의 이야기였는데, 범죄 피해자를 만나는 직업인 프로파일러가 출연하여 저의 업무와도 관련이 높아 재미있게 시청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방청은 없었지만, 일반 시민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을 첨부하여 더욱 알찬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범죄에 대한 부분도 청소년들 측면에서 살펴보아 유익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편성 시간대가 조금 보기 편한 시간대였으면 어떨까 하는 점입니다. 혹시, 보다 좋은 시간대로의 이동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MBC 뉴스 가운데 「몰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몰카」대신 「불법촬영」이라고 표현했으면 합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뉴스 데스크를 중심으로 5월 뉴스를 전체 모니터하였는데, 그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보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관련 연구단지의 성과물 보도는 참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밀접한 연구단지의 모습을 보여줘 우리지역의 이런 기관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하는 우리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였습니다.

5/13 보도된 「금강 백리, 뱃길로 잇는다」는 우리 지역의 큰 사업이라는 느낌인데, 서천군 행정과장과 사업단체를 소개하고, 환경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도 없이,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 뱃길에 대한 청사진만을 제시한 보도였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 짧게 처리되고 긍정과 부정의 인터뷰도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후,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야생진드기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진드기는 농촌에서 많이 걸리고, 도시의 잔디밭에서 걸릴 수 있는 문제라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보도로 필요합니다. 다만 자료화면에서 샬레위의 진드기를 손위에 올리려는 화면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칫 진드기는 위험하지 않다는 진드기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효과를 줄수도 있기에 화면구성시 보다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CCTV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폭행 당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약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뉴스 보고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고, 진단서 화면에서도 주민번호 이름 등의 주요 정보는 블러처리가 되었으나, 나머지는 노출되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보다 세심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15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이벤트는 의미와 함께 음악이 잘 구성된 코너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의료 관련 코너에서는 방송에 익숙치 않은 의사가 출연하여, 그대로 원고를 읽는 진행이 되었는데, 시청자가 보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방송에 비전문가가 출연할 때는 진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좀 더 도움을 주거나, 리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기동 위원 :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최근 편성, 보도 부문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수상하고 있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전MBC의 지역방송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두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먼저 작년 한 해, 유지은 아나운서 관련 인권위의 인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픈 부분이지만, 인권위의 결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보이후, 시청자에게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가 지역에서 많습니다.

두번째는 홈페이지 제작된 프로그램 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너무 간결하여, 프로그램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보다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지역사 공동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자체 제작과 같은 정도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

저는 건강플러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플러스에서는 매주 요리는 소개하는데, 관련레시피와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 업로드가 조금은 부진하지 않은가 합니다. 올리는 레시피도 재료에 대한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기술하는데, 주재료와 양념, 부재료 등을 명기하면 보다 좋을듯합니다.

이어지는 TV주치의에서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PPT와 구두로만 진행하여, 건조하고 지루한 느낌입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박종훈 진행자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말씀드렸는데, 많이 개선된 느낌입니다. 보다 나아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맛집에 대한 내용들이 많히 소개되는데, 방송된 식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소개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빠른 업데이트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래균 편성국장 :

2017년에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올해 참석해보니, 지금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예전보다 날카로운 의견이 많아,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즉시 업로드를 하는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음날 바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공익적인 좋은 캠페인으로 발전시키는 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강플러스에 대한 자세한 모니터도 감사합니다. 개선이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능감 있는 의사가 출연이 가능하면, 보다 제작이 원활한데, 충분한 교육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의 방송시간대에 대해서는, 프라임 시간대는 본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가 어려워진 이후 더욱 강화되어, 좋은 시간대 확보가 어렵지만, 계속 본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서주석 보도국장 :

지난번 회의까지는 사업국장으로 참석하다 이번부터는 보도국장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막 등의 뉴스문법, 보도 스탠스 (방향성), 시청자 인터뷰 자막, 왜곡되게 만드는 자막에 대한 표기문제, 사투리는 항상 교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보다 철저히 반영하겠습니다.

「몰카」라는 단어는 판결문을 인용하다보니, 그대로 방송에 사용하였는데, 최근 용어의 사용 주기가 빨라진 탓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어 사용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금강 뱃길에 대한 보도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보도하나 하는 고민과 직결된 아이템입니다. 환경단체의 성명은 스트레이트 기사화하여 같이 전달하였고, 향후의 결론은 시청자에게 말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5개 시군이 협약을 하는 정도의 단계이고 환경 단체의 입장을 쓰기에는 이른듯하여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추후 후속보도나 토론을 통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가짜 뉴스관련하여 MBC뉴스에 대한 시청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선 보도, 촉법 소년의 문제 보도 등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하는 등 열악한 제작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많은 제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

홈페이지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해당 부서 평가에 반영하니, 보다 신속해지는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원식 대표이사 :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혹은 재정의 문제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시청자의 관점에서 보다 반성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정 어린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 코로나와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주신 신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